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 불안의 이중매개효과*

박선진¹⁾ 강민주²⁾

요약

본 연구는 공동양육의 질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 불안의 이중매개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대상은 만 4, 5세 유아 318명과 그들의 어머니였다. 연구 결과, 남아보다 여아가, 4세보다 5세가 사회적 기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남아의 어머니일 때와 비취업모일 경우에 더 지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동양육의 질은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 불안은 공동양육의 질과 유아의 사회적 기술 사이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내적, 외적 요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자료로 활용됨과 동시에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 공동의 역할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공동양육 시행을 위한 정책적 제안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사회적 기술, 공동양육의 질,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아 불안

I.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처음 선포한 세계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가

* 본 논문은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인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 불안의 이중매개효과(2020)」를 요약 및 수정·보완한 것임.

1)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 전공
2)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갖춰야 할 핵심역량을 비판적 사고, 창의성, 의사소통, 협업의 4C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능력은 미래의 기술로는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특히, 타인의 감정과 요구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 타인과 협업하는 능력이 앞으로 더 많이 요구될 것이다. 유아기에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관계 기술은 이후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긍정적이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자기주장, 책임감, 공감, 자기 통제 등이 포함된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기술은 타인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능력을 성장시키는 데 기반이 되는 행동(Gresham & Elliott, 2008)이다. 사회적 기술이 발달한 유아는 타인에게 협동적이고 사교적이며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표현하며, 교육기관 내에서도 높은 학업 성과를 나타내고, 교육기관 내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다(Gresham & Elliott, 2008). 이와 반대로 Egan과 Perry(1998)는 사회적 기술에 능숙하지 못한 아동들은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또래로부터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경험을 한 유아는 내재적, 외현적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Ladd & Burgess, 2001), 이는 다시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문제행동의 악순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기에 건강한 사회적 기술의 습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보다 정확하게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먼저 부모의 요인을 들 수 있다. 부모-자녀는 최초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존재이며, 부모는 자녀의 발달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부모는 가족 내에서 사회의 공통된 행동 특징과 문화 규범을 습득시키는 사회화 과정을 자녀에게 경험하게 한다. 이렇듯이 부모-자녀의 가족 관계는 유아에게 있어 사회화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 18, 19세기에는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전업주부 모델의 가구가 대부분이었던 것과 달리 20세기 초반이 되면서 점차 이중생계부양자 모델 및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증가되었다(강이수·신경아·박기남, 2015). 20세기 가족 구조 및 가족 내 분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부모 역할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부모 한 사람이 주 양육자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양육은 아버지, 어머니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양육에서의 아버지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 역할을 다룬 연구들(박선주·강민주, 2017)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두된 개념이 공동양육(coparenting)이다. 부모 공동양육이란 부부 간에 나타나는 양육에 대한 가치관, 신념 및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정서를 존중하고,

자녀 양육과 관련된 행동, 생각들을 공유하며, 지지해주는 방식으로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것(Feinberg, 2003; Van Egeren & Hawkins, 2004)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더불어 배우자의 양육 태도나 행동을 방해하거나 비판하는 태도 역시 포함된다(Feinberg, Brown, & Kan, 2012)고 볼 수 있다. Cabrera, Shannon과 Tamis-LeMonda(2007)가 부모의 양육 요인과 자녀의 인지적, 사회 정서적 발달 검사에 대한 종단 연구를 실시한 결과, 어머니 혼자 양육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아버지가 함께 양육 역할을 수행한다면 유아의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후 Cabrera, Scott와 Fagan 외의 연구(2012)에서 부모의 부정적 공동양육이 유아의 문제행동과 낮은 사회적 기술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유아의 발달 중 사회적 변인을 예측하는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변인임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 변인 중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으로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직접적인 부모의 반응을 들 수 있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정서 표현과 조절에 관한 어머니의 기대를 반영하는 어머니의 직접적인 정서사회화 행동이다(Blandon, 2015).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보이는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과 태도는 유아가 경험하는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 행동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Eisenberg, Fabes, & Murphy, 1996). 유아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경험한 이후,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상황이 유발하는 정서를 유아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지에 영향을 줌으로써 이후 유아의 정서와 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h & Kang, 2020).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대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자녀가 나타내는 정서에 대하여 부모가 감정표현을 격려하고 문제중심적, 정서중심적인 지지적인 반응을 보일수록 유아는 높은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적 관계에서 수용되는 수준이 높았다(Eisenberg, Fabes, & Murphy, 1996). 이와 반대로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처벌적이고 스트레스 반응의 비지지적 반응을 보인 경우 그 자녀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수용되는 수준이 낮게 나타나거나, 또래유능성의 하위변인인 사교성, 친사회성 등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다(조인영, 2016; Eisenberg, Fabes, & Murphy, 1996). 이처럼 어머니가 나타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은 자녀의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선행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주는 부모 요인, 특히 공동양육과 관련이 있다. 소수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가 각자 가지고 있는 양육의 불일치한 모습을 보이는 부모 공동양육의 경우에 실제 양육 장면에서 자녀에 대한

기대와 훈육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부모-자녀 간에 긴장된 상호작용을 불러일으킨다(Kitzmann, 2000). 부모-자녀 간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에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Eisenberg, Fabes, & Murphy, 1996). Eisenberg, Fabes와 Murphy(1996)에 의하면 부모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서를 표현하고 대화를 나누며, 자녀의 정서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 자녀의 정서를 사회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Ladd와 Le Sieur(1995)에 의하면, 자녀는 갈등 시 부모가 자녀에게 나타내는 행동 및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그 행동이 목적을 성취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부모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이 행동을 연습한 뒤 다른 아동과 상호작용 할 때 적용한다고 하였다. 부모가 보이는 자녀의 정서관련 양육이 부부 간과 부모 자녀의 관계에 영향력이 있다는 연구는 보고되고 있지만(Blandon, 2015), 구체적으로 부모 공동양육과 자녀의 정서 반응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인 부모 공동양육의 질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아의 사회적 기술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내적 요인인 유아 불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불안을 포함한 유아의 정서는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유아가 가지고 있는 정서는 유아의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며, 긍정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놀이에서 나타난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이후의 유아의 건강한 사회적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Mendez & Fogle, 2002). 이와 반대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유아는 또래관계와 행해지는 놀이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Cohen & Mendez, 2009). 유아가 놀이에서 또래와 부정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경우 이는 이후의 사회적 부적응을 불러일으킨다. 유아교육기관 등의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한 유아들은 다시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 상태를 가지게 되고, 이는 다시 사회적 기술 부족의 순환적인 과정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유아가 가지고 있는 정서 상태, 특히 불안은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Edwards, Rape와 Kenedy 외의 연구자들(2010)은 유아 불안의 하위 요인이 성인과는 다른 종류로 분류되어 유아 불안이 성인의 불안과 다른 특징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유아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양육자 간의 관계적, 행동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부모 요인이 유아 불안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부부 갈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정이다(오하나·박주희, 2018). 특히 양육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모 공동양육과 유아 불안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서로의 양육에 대한 지지

가 낮게 나타나고, 자녀에게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긍정적인 표현 등을 적게 하는 등의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낮은 경우에 만 3, 4세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은 높게 나타났다(최미경·도현심·김민정 외, 2013). 같은 맥락으로 8~11개월의 영아들 대상으로 3년 후 자녀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 적대적-경쟁적 부모 공동양육을 경험한 유아는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다(McHale & Rasmussen, 1998).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부모 공동양육의 질은 자녀의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수의 연구이지만,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유아의 위축과 우울, 불안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어머니가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하여 비지지적인 반응을 보일수록 유아는 사회적 위축 등의 내면화 문제 행동을 더 보였다(권연희, 2012).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효민(2013)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비지지적인 반응을 보일수록 자녀는 우울, 불안을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변인은 대부분 유아의 정서발달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으나, 불안, 우울 등의 유아 내면화 문제행동 간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일부 나타나고 있다.

종합적으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부모 공동양육의 질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아 불안, 유아의 사회적 기술이 서로 관련이 있음을 규명해볼 수 있다. 즉, 공동양육의 질이 낮은 경우 자녀의 실제 양육 장면인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영향을 주며(최미경·도현심, 2017), 유아는 서로에게 협조적이지 않은 부모를 보며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심리적 불안감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등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 유아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개인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 공동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 부모에게 변화된 양육 환경에 대한 인식과 개선의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성, 연령, 형제유무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구자연, 2017; 안라리, 2005; 이현정·조성연, 2002)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성, 연령, 형제유무를 통제하고,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측정변인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 불안의 이중매개효과가 있는가?

2-1.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2-2.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 불안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 충청남도, 대전시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 운영 시간, 반 구성 및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유사한 국공립·민간·직장 어린이집 15곳과 공립·사립 유치원 3곳에 재원 중인 만 4, 5세 유아 318명과 그들의 어머니 318명이다. 또한 유아교육 기관의 교사로서 대상 아동을 3개월 이상 지도하고 있는 담임교사 35명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평정하였다. 본 연구대상 유아의 일반적인 특성은 남아는 184명(57.9%), 여아는 134명(42.1%)이었으며, 만 4세는 138명(43.4%), 만 5세는 180명(56.6%)이었다. 그리고 외동아는 121명(38.1%), 형제아는 197명(61.9%)이었으며,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비취업 194명(61.0%), 취업 124명(39.0%)이었다.

2. 연구도구

가. 유아의 사회적 기술

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Gresham과 Elliott(1990)의 Social Skills Rating System(SSRS)의 개정판인 Gresham과 Elliott(2008)의 사회적 기술 향상 체계-평정 척도(Social Skills improvement System-Rating Scale; SSiS-RS)중 유아용을 본 연구자가 번안하고, 아동학 교수 1인이 검토한 것을 사용하였다. SSiS-RS는 이론과 다수의 경험적 연구들에 의해 기존 문항들이 수정되고 하위요인이 추가된 척도이며, BASC-2(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 Second Edition; Reynolds & Kamphaus, 2004)의 사회적 기술 척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

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기술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 영역을 상관분석을 하였을 시에 각 하위 영역 간에 높은 상관이 나타났기에, 본 연구에서 자료를 분석할 때 사회적 기술을 각 하위요인별로 나누지 않고 사회적 기술의 총점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된 Cronbach's α 는 .94이었다.

나. 부모 공동양육의 질

부모 공동양육(Coparenting)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Feinberg, Brown과 Kan(2012)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CRS(Coparenting Relationships Scale)을 본 연구자가 번안하고, 아동학 교수 1인이 검토한 것을 사용하였다. 7점 Likert식 척도로 이루어지고, 총 7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 공동양육의 질에 대한 전체 점수와 각각 하위요인을 대표하는 점수로 산출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양육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분석할 때 공동 양육에 대한 점수를 각 하위영역별로 나누지 않고 총점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부모 공동양육 질의 총점에 대한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아가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Fabes, Eisenberg와 Bernzweig(1990)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s(CCNES)를 수정·번안한 김희정(1994)의 도구를 Suh와 Kang(2020)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7점 Likert식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여섯 가지 유형을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지지적 반응을 역채점하여 변인간의 방향성을 맞추고, 전체 문항을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지지적으로 반응함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지지적인 반응은 유아의 정서조절 및 사회적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지적인 반응을 적게 보일 때 유아의 정서 조절 및 사회적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가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조인영, 2016; Nelson & Boyer, 2018)는 것을 근거로 하였다.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이를 근거로 본 연구와 동일한 CCNES를 이용하여 하나의 변인으로 합산하여도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을 것(한세영·조인영·한아름, 2019)이라고 하여 본 연구에서도 전체 문항을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CCNES 총점에 대한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라. 유아 불안

유아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안명희(2017)가 한국판으로 표준화 한 BASC-2(The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 Second Edition; Reynolds & Kamphaus, 2004)를 사용하였다. K-BASC-2의 부모 보고형 유아용 검사는 총 11개의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문항 수는 총 134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불안을 측정하는 1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유아 불안의 점수 범위는 13점~5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불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유아 불안의 총점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92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유아교육기관을 통하여 어머니에게 부모 공동양육의 질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아 불안에 대한 질문지 401부를 배부하였다. 일주일 뒤 연구에 동의한 어머니의 질문지 331부를 회수하였고, 담임교사가 해당 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 중 다수의 결측치를 포함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31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25.0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독립표본 t 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이 다수의 간접경로를 포함하기 때문에, 가상의 팬텀(phantom) 변수를 활용하여 검증하는 방식을 적용해 개별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중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편향 수정 부트스트랩(Biased-Corrected Bootstrap) 방법을 적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측정변인의 차이 검증

유아의 성, 연령, 형제유무,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측정변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기술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성, 연령을 먼저 살펴보면 여아 집단($M=2.08$, $SD=.53$)이 남아 집단($M=1.98$, $SD=.34$)보다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t=2.09$, $p<.05$). 연령에서는 5세 집단($M=2.09$, $SD=.45$)이 4세 집단($M=1.97$,

$SD=.47$)보다 유의미한 수준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t=-2.26, p<.05$). 즉, 사회적 기술에 대해 성, 연령을 비교했을 때, 성에서는 여아가, 연령에서는 5세가 사회적 기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남아의 어머니($M=4.33, SD=.84$)가 여아의 어머니($M=4.15, SD=.81$)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비취업모($M=4.33, SD=.76$)가 취업모($M=4.13, SD=.92$)보다 부정적 정서에 대한 지지적인 반응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05, p<.05$). 다른 측정변인인 부모 공동양육과 유아 불안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측정변인들의 차이 검증

($N=318$)

	구분	유아의 사회적 기술 $M (SD)$	부모 공동양육의 질 $M (SD)$	부정적 정서에 대한 모의 반응 $M (SD)$	유아 불안 $M (SD)$
성 ^a	남 ($n=184$)	1.98 (.34)	4.61 (.92)	4.33 (.84)	1.88 (.61)
	여 ($n=134$)	2.08 (.53)	4.63 (.81)	4.15 (.81)	1.95 (.49)
	t	2.09*	-.28	1.97*	-1.11
연령 ^b	4세 ($n=138$)	1.97 (.47)	4.59 (.84)	4.24 (.85)	1.90 (.55)
	5세 ($n=180$)	2.09 (.45)	4.64 (.90)	4.27 (.81)	1.92 (.58)
	t	-2.26*	-.51	-.31	-.26
형제유무 ^c	외동아 ($n=121$)	2.00 (.49)	4.62 (.85)	4.18 (.89)	1.95 (.54)
	형제아 ($n=197$)	2.05 (.44)	4.62 (.89)	4.30 (.79)	1.89 (.58)
	t	-.44	.07	-1.34	.98
모의 취업여부 ^d	비취업 ($n=194$)	2.04 (.45)	4.61 (.89)	4.33 (.76)	1.91 (.58)
	취업 ($n=124$)	2.00 (.47)	4.62 (.84)	4.13 (.92)	1.92 (.54)
	t	-.04	-.07	2.05*	-.19

^a남아=0, 여아=1. ^b만 4세=0, 만 5세=1. ^c외동아=0, 형제아=1. ^d비취업=0, 취업=1.

* $p < .05$.

2. 측정변인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가.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포함한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성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와의 상관계수는 .11 ($p < .05$)로 유의하였다. 유아의 성별이 여아일 경우 어머니가 취업모 상태일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령은 형제유무 .22 ($p < .01$), 어머니의 취업여부 -.13 ($p < .05$)로 유의하였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형제가 있었으며, 어머니는 비취업 상태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형제유무와 어머니의 취업여부의 상관계수는 -.53 ($p < .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형제아가 있는 경우, 어머니는 비취업 상태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유아의 성과 사회적 기술의 상관계수는 .10 ($p < .05$)로 유의하였으며,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11 ($p < .05$)로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연령은 사회적 기술과 .13 ($p < .05$)으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다른 변인들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형제유무는 측정 변인과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의 상관계수는 -.12 ($p < .05$)로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사회적 기술과 부모 공동양육의 질의 상관계수는 .38 ($p < .01$)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높을수록 사회적 기술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둘째, 유아 불안과 사회적 기술의 상관계수는 -.42 ($p < .01$)로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사회적 기술의 정적인 상관계수는 .39 ($p < .01$)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 불안이 높을수록 사회적 기술이 낮으며,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지지적일수록 사회적 기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부모 공동양육의 질과 유아 불안의 상관계수는 -.40 ($p < .01$)으로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부모 공동양육의 질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의 상관계수는 .21 ($p < .01$)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높아질수록 불안은 낮고,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지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 불안의 상관계수는 -.15 ($p < .01$)로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지지적일수록 유아의 불안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N=318)

	1.	2.	3.	4.	5.	6.	7.
1. 성 ^a	-						
2. 연령 ^b	-.02	-					
3. 형제 유무 ^c	-.05*	.22**	-				
4. 모의 취업여부 ^d	.11*	-.13*	-.53**	-			
5. 사회적 기술	.10*	.13*	.07	-.09	-		
6. 공동양육의 질	.02	.03	.01	-.03	.38**	-	
7. 부정적 정서에 대한 모의 반응	-.11*	.02	.08	-.12*	.39**	.21**	-
8. 유아 불안	.06	.01	-.06	.01	-.42**	-.40**	-.15**

^a남아=0, 여아=1. ^b만 4세=0, 만 5세=1. ^c외동아=0, 형제아=1. ^d비취업=0, 취업=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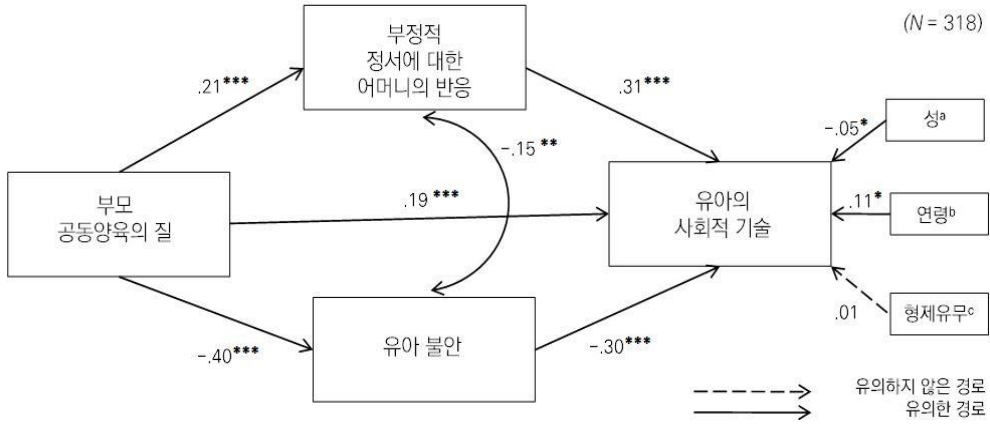
* $p < .05$, ** $p < .01$.

나. 경로분석의 검증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 불안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재원중인 기관의 담임교사가 사회적 기술을 평정하여, 사회적 기술에 교사의 특성이 내재되어(nested)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측값들의 비독립성과 비정규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수 추정법으로 MLR(Maximum Likelihood with Robust standard errors)을 사용하였다. 또한 성, 연령, 형제유무가 유아의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구자연, 2017; 안라리, 2005; 이현정·조성연, 2002)를 근거로 이를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는 $\chi^2 = 14.44$ ($df=7$, $p < .05$)이고, $TLI=.90$, $CFI=.96$, $RMSEA=.06$ 으로 나타났다.

다.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부모 공동양육의 질과 유아의 사회적 기술 모형의 경로계수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표 3〉, [그림 1]과 같다.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beta=.19$, $p < .001$). 즉,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서로 협력하고 일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기술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이다.



^a남아=0, 여아=1. ^b만 4세=0, 만 5세=1. ^c외동아=0, 형제아=1.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 불안의 이중매개효과 모형

라.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 불안의 간접적인 영향

첫째, 부모 공동양육의 질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beta=.21, p<.001$). 그리고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beta=.31, p<.001$). 즉,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높을수록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지지적으로 나타나며, 유아의 사회적 기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부모 공동양육의 질과 유아의 사회적 기술의 사이에서 유의미하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둘째, 부모 공동양육의 질은 유아 불안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었다($\beta=-.40, p<.001$). 그리고 유아 불안은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0, p<.001$). 즉,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서로가 비협조적일 경우, 유아는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였으며, 높은 수준의 불안은 사회적 기술의 감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유아 불안은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 불안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각 변인 간의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beta=-.15, p<.01$).

〈표 3〉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 불안의 이중매개효과의 경로계수

	경로	<i>B</i>	β	<i>S.E.</i>
부모 공동양육의 질	→ 사회적 기술	.10	.19***	.03
부모 공동양육의 질	→ 부정적 정서에 대한 모의 반응	.20	.21***	.05
부정적 정서에 대한 모의 반응	→ 사회적 기술	.17	.31***	.03
부모 공동양육의 질	→ 유아 불안	-.26	-.40***	.03
유아 불안	→ 사회적 기술	-.24	-.30***	.04

*** $p < .001$.

다음으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 불안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편향 수정 부트스트랩(Biased-Corrected Bootstrap) 분석을 실시하였으며(Shrout & Bolger, 2002),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째,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매개하여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직접효과($\beta=.10$, 95% Bias-corrected CI = .05 ~ .16)는 유의하였으며, 간접효과($\beta=.04$, 95% Bias-corrected CI = .02 ~ .06)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매개로 하여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유아 불안을 매개하여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직접효과($\beta=.10$, 95% Bias-corrected CI = .05 ~ .16)와 간접효과($\beta=.06$, 95% Bias-corrected CI = .04 ~ .09)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아 불안을 매개로 하여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 불안의 이중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95% 신뢰구간)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부모 공동양육의 질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사회적 기술	.10*** (.05~.16)	.04*** (.02~.06)
부모 공동양육의 질	유아 불안	사회적 기술	.10*** (.05~.16)	.06*** (.04~.09)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 불안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측정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기술에 대해 성에서는 여아가, 연령에서는 4세보다 5세가 사회적 기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성에 따라 사회적 기술이 다르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사회적 기대가 반영되었다(구자연, 2017)라고 한 것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유아를 지도 또는 양육하는 교사, 부모의 문화적 고정관념, 사회적 기대는 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성역할에 대한 성인의 태도가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부분이다. 또한 사회적 기술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교육방법 제안 시에 교육대상의 성, 연령 등에 대한 변별성을 두어야 함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술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변인 외의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인 영향력이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남아의 어머니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여아와 남아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고한 연구들(Suh & Kang, 2020)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유아의 성별에 따라 부모 기대 수준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역시 남아와 여아에게 다르게 반응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보이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지지적인 반응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자녀와의 시간이 취업모보다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양육에 있어 정서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일에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데 사용한 시간을 비교한 결과,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약 2시간 30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순범, 2015). 하지만 단지 시간의 양적 접근이 아닌 구체적으로 자녀 양육에 영향을 주는 질적 요인에 대하여 추후 연구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형제가 있었으며, 어머니는 비취업 상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형제아가 있는 경우, 어머니는 비취업 상태인 경우가 더 많았으며, 유아의 성별이 여아일 경우에 취업모일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많을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성효용, 2008)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일·가정 양립을 하고 있는 맞벌이 가구는 여전히 일과 가정의 선택지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일·가정의 양립 갈등 상황에서 많은 취업모가 출산과 자녀 양육의 부담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있다(이삼식·최효진, 2014). 최근 가정 내 육아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사용의 보편화’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연구 결과(권미경·문무경·김영민, 2019)가 보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정책적 개선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형제수와 어머니의 취업여부만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등을 논의하기보다는 추후 연구에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유의미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유아의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외 선행연구(이미나·차기주·정미라, 2016; McHale & Rasmussen, 1998)와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점차 타인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지식, 태도, 기술을 습득하는 시기에 있는 유아에게 부모의 영향력은 사회적 기술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한 결과이다. 특히 유아는 가족 내에서 부모가 협력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부부 간의 상호작용, 문제해결 방법 및 태도, 관계 형성의 방식 등을 모방하고 이를 내재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이후 유아가 기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 불안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매개 효과를 나타내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배우자의 지지는 동료, 자녀의 교육기관과 같은 기타 사회적 지지보다도 부모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이끈다(양예진·도현심, 2019). 양육 시 배우자의 양육행동에 대해 협조적이거나 지지하는 면이 적고, 자녀에게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긍정적인 표현 등을 적게 할수록 어머니는 자녀 양육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여기며,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박해미, 1994). 다시 말해 부모 간 양육에 대한 지지가 적을 경우 결과적으로 어머니 양육부담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실제 어머니의 양육 장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자녀를 지도, 훈육하기 시작하는 유아기 부모가 나타내는 서로 간의 이해 및 원활한 의사소통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나타내는 표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McHale, Kuersten-Hogan, Lauretti et al. 2000). 결과적으로 부모 공동양육의 질은 자녀 양육행동 중 나타나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인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 직접적인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권연희·이종희, 2005; Nelson & Boyer, 2018)와 같은 맥락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자녀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을 경험한 유아일수록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부정적 정서를 어떻게 조절하고 표현해야 하는지를 배울 기회를 가지게 되고, 교육기관과 같은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 이를 적용하여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즉, 평소 어머니가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어떠한 태도로 반응했는지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기술의 형성에 다르게 작용했음을 알려준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높을 경우, 다시 말해 부모 간 양육에 대한 일치성이 높고 협력성이 높게 나타나는 부모의 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실제 장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 양육 장면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경험한 유아는 이를 내재화하여, 사회관계에서 나타나는 상황이나 문제 해결을 함에 있어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녀 발달에 있어 부모의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결과로서,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영유아 가구의 육아 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의 연구(이정림·구자연·김한솔, 2019)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소지에 대하여 81.2%가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부모 교육에 대해서는 80.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부모 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 교육 주 참여자는 어머니이므로, 부모가 함께 참여 또는 공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녀 돌봄 휴가 사용 권장 등의 부모교육 참여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 불안이 유의미하게 매개 효과를 나타내었다. 먼저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유아 불안에 부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낮은 공동양육의 질을 경험한 유아는 이후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나타나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이다(한영숙, 2019). 또한 부모가 배우자가 함께 있거나 없을 때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언급하지 않는 등의 배우자와의 낮은 친밀감이나 갈등 노출은 자녀가 가정 내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Murphy, Jacobvitz, & Hazen, 2016)라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즉, 가정 내에서 부모의 불일치되고 협

력적이지 못한 낮은 부모 공동양육을 경험한 자녀는 심리적으로 불안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불안은 유아의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유아는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동반하여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즉, 불안이 높아진 유아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성미영, 2006). 또한 사회적 기술이 낮은 아동은 불안의 요소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Ladd & Profilet, 1996)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불안 등의 심리적 상태를 보이는 경우 타인과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과 신체적, 언어적, 물리적 제약을 더 많이 경험하며 유아가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관계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가진 유아는 또래에게 배척되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는 동기나 기회가 감소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유아 불안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 불안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아동의 신호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고, 부정적 정서에 대하여 비지지적인 상호작용과 통제 행동을 많이 보일 경우, 그 자녀는 불안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안효민, 2013)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감정표현에 대해 위로하거나 격려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경우 자녀는 부정적 정서를 잘 조절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긍정적인 발달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어머니가 화를 내거나 꾸짖는 반응을 보인다면 자녀는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해소하거나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이후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게 되어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측면으로 자녀가 불안감을 자주 나타내고,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부모는 양육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아지며(정미라·송승아·양수진, 2018),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비지지적인 반응을 유발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 불안의 두 변인간 상관성만을 살펴보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변인 간의 경로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 불안의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질 높은 공동양육은 가족 내의 정서적 안정감을 발현시키며, 가족 내의 긍정적 분위기는 유아의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부모로부터 안정된 환경을 제공받고 협력적이고 일관된 부모의 상호작용을 경험한 유아는 심리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이후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게 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 공동양육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어머니가 보고한 설문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르게 지각하는 공동양육의 질은 유아의 발달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박익새·남은영, 2015).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공동양육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의 인식을 함께 살펴 비교해 보는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이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유아 발달의 부정적인 이중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 공동양육의 질을 관찰법을 사용할 경우, 구체적인 놀이 장면에서 부모 간의 상호작용, 말투, 제스처 등을 통한 심리적 또는 상황적 특성과 사건의 전후 맥락을 통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설문지법과 함께 이를 보완한 관찰법 또는 일일보고법 등의 측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매개 변인인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불안 간의 상관성만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신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 있게 행동하기도 하고 불안하거나 위축된 행동을 보이기도 할 것이라고 하였다(권연희·이종희, 2005; 문영경·이영, 2012). 즉,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 불안에 인과적 영향력이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이를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유아의 사회적 기술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성, 연령, 형제유무만을 통제 변인만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자녀와 보내는 시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경로분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각 측정변인을 하위 요인별로 나누지 않고 총점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하위 요인별로 나누어 각 요인들에 대한 경로 및 영향력을 살펴본다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각 변인들의 영향력을 동시에 살펴본 것은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 요인의 영향력만 검증한 선행연구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추후연구에서 유아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차원의 대상, 요인을 함께 고려한다면 사회적 기술 형성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첫째,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단순히 부모 양육의 영향이 아니라, 가정 내 부모 간 협동적인 자녀의 양육과정이 자녀의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결과이다. 이와 더불어 부모 공동양육의 질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자녀 양육에 있어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존중하고 지지하며 생각을 공유하는 노력이 모두 중요함을 증명하였다. 이는 자녀 양육에 있어 가정 내의 부모 차원의 노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구체적으로 공동양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육아 휴직제도의 변화, 부모가 함께 양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의식 개선을 위한 지역 내 강좌 개설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의 실질적인 공동양육을 위한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공동양육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나타난 결과는 기관에서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대한 교육을 계획, 실시함에 부모 요인을 고려해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관에서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을 시에 단순히 기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가정과의 연계 학습 또는 학부모의 참여를 통한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아가 슬픔, 분노,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보였을 때 부모가 거부적 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유아의 사회적 기술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특히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바람직한 반응에 대해 구체적인 기술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유아의 변인인 불안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킴으로 유아 내적 변인에 대한 접근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있어서 가족 변인과 유아 내적 변인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유아 불안이 나타낼 수 있는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성용과 김진호(2019)의 사회적 기술에 대한 연구 동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기술의 프로그

램은 대부분 처방적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처방적 프로그램은 발현되는 아동의 행동수정에 있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방적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아기의 불안의 경우,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안의 유무가 아닌 불안의 수준이므로 유아가 불안을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인의 관찰 및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외부 인사나 특별한 훈련에 의한 실시보다는 부모 또는 교사가 손쉽게 적용해볼 수 있도록 동영상 또는 웹자료 등의 구축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사소통, 협력성, 공감, 관여 등 사회적 기술의 하위변인별 습득 기술을 돕기 위한 교육방법을 세부적으로 제시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부모 모두가 양육에 참여하고, 자녀에게 실제적으로 또래와 협동하는 방법, 사회적 관계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사회적 기술에 대한 지식, 기술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녀 양육에 있어 일관성 있는 지도 방안을 시행해볼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이다. 이런 측면에서 공동양육의 질을 향상시켜 유아 불안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적 기술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힌 본 연구결과는 구체적인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예방적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이수·신경아·박기남(2015). 여성과 일: 일터에서 평등을 찾다. 경기: 동녘.
- 구자연(2017). 어머니의 양육방식 유형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유아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1): 육아문화 분석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권순범(2015).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사용양태: 단독주행동, 동시주행동, 동시부행동을 기준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권연희(2012).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과 관련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및 정서표현성. 대한가정학회지, 50(5), 13-24.
- 권연희·이종희(2005).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아동의 정서성 및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6), 201-216.
- 김희정(1994). 어머니가 지각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동의 대처 반응.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문영경·이영(2012).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 영향: 유아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50(1), 103-119.
- 박선주·강민주(2017).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11(3), 87-111.
- 박익새·남은영(2015). 부부공동양육, 아버지 양육참여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4), 135-153.
- 박해미(1994). 자녀 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성미영(2006).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따른 사회적 기술과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7(3), 285-300.
- 성효용(2008).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보육정책. 여성경제연구, 5(2), 81-98.
- 안라리(2005). 만 5세 남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조절전략. 열린유아교육연구, 10(2), 61-81.
- 안명희(2017). K-BASC-2 한국판 정서-행동 평가시스템 사용자 지침서. 서울: 인싸이트.
- 안효민(2013).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정서조절능력이 학령기 남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양예진·도현심(2019). 부부갈등, 부모공동양육 및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아동학회지, 40(3), 39-51.
- 오한나·박주희(2018).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부부갈등이 남녀 유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생애학회지, 8(2), 47-61.
- 이미나·차기주·정미라(2016). 어머니의 원가족 기능성, 성인애착, 공동양육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심리학회: 여성, 21(2), 229-251.
- 이삼식·최효진(2014). 취업여성의 출산행태와 정책과제. 세종: 보건복지부.
- 이성용·김진호(2019). 일반 유아 및 초등학생의 사회적 기술 증진을 위한 실험연구 분석. 지적장애연구, 21(2), 25-49.
- 이정림·구자연·김한솔(2019). 영유아 가구의 육아 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II). 육아정책연구 소.
- 이현정·조성연(2002). 형제, 자매관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23(3), 139-148.
- 정미라·송승아·양수진(2018). 유아의 문제행동이 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마음챙김에 의해 조절된 인지적 자기조절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86.
- 조인영(2016).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 유능성의 관계: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매개 및 조절효과.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미경·도현심·김민정·신나나(2013). 부모공동양육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25-39.

- 최민경·도현심(2017). 유아의 기질 및 부부갈등과 부모공동양육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27-228.
- 한세영·조인영·한아름(2019).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사회적 힘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5(1), 1-14.
- 한영숙(2019). 부부갈등, 부모공동양육, 아동의 내재적·외현적 문제행동 간의 종단적 관계. *아동학회지*, 40(4), 109-122.
- Blandon, A. Y. (2015). Mothers' and fathers' response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Family and physiological correlates. *Family Relations*, 64(3), 431-445.
- Cabrera, N. J., Scott, M., Fagan, J., Steward-Streng, N., & Chien, N. (2012). Coparenting and children's school readiness: A mediational model. *Family Process*, 51(3), 307-324.
- Cabrera, N. J., Shannon, J. D., & Tamis-LeMonda, C. (2007). Fathers' influence on their children's cognitive and emotional development: From toddlers to pre-K. *Applied Development Science*, 11(4), 208-213.
- Cohen, J. S., & Mendez, J. L. (2009). Emotion regulation, language ability, and the stability of preschool children's peer play behavior.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0(6), 1016-1037.
- Edwards, S. L., Rape, R. M., Kenedy, S. J., & Spence, S. H. (2010). The assessment of anxiety symptoms in preschool-aged children: the revised preschool anxiety scale.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9(3), 400-409.
- Egan, S. K., & Perry, D. G. (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2), 299-309.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5), 2227-2247.
- Fabes, R. A., Eisenberg, N., & Bernzweig, J. (1990).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CCNES): Description and scoring*. Temple, AZ: Arizona State University.
- Feinberg, M. E. (2003). The internal structure and ecological context of coparenting: A framework for research and intervention.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3(2), 95-131.

- Feinberg, M. E., Brown, L. D., & Kan, M. L. (2012). A multi-domain self-report measure of coparenting. *Parenting, 12*(1), 1-21.
- Gresham, F. M., & Elliott, S. N. (2008). *Social Skills Improvement System: Rating scales manual*. Bloomington, Minnesota: NCS Pearson.
- Kitzmann, K. M. (2000).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subsequent triadic family interactions and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1), 3-13.
- Ladd, G. W., & Burgess, K. B. (2001). Do relational risks and protective factors moderate the linkages between childhood aggression and early psychological and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2*(5), 1579-1601.
- Ladd, G. W., & Le Sieur, K. D. (1995). Parents and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Vol. 4): Applied and practical parenting*. Hillsdale, NJ: Erlbaum.
- Ladd, G. W., & Profilet, S. M. (1996). The Child Behavior Scale: A teacher-report measure of young children's aggressive, withdrawn, and prosocial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32*(6), 1008-1024.
- McHale, J. P., & Rasmussen, J. L. (1998). Coparental and family group-level dynamics during infancy: Early family precursors of child and family functioning during preschoo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0*(1), 39-59.
- McHale, J. P., Kuersten-Hogan, R., Lauretti, A., & Rasmussen, J. L. (2000). Parental reports of coparenting and observed coparenting behavior during the toddler peri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2), 220-236.
- Mendez, J. L., & Fogle, L. M. (2002). Parental reports of preschool children's social behavior: Relations among peer play, language competence, and problem behavior.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20*(4), 370-385.
- Murphy, S. E., Jacobvitz, D. B., & Hazen, N. L. (2016). What's so bad about competitive coparenting? Family-level predictors of children's externalizing symptom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5*, 1684 -1690.
- Nelson, J. A., & Boyer, B. P. (2018). Maternal responses to negative emotions and child externalizing behavior: Different relations for 5, 6, and 7 year olds. *Social Development, 27*(3), 482-494.
- Reynolds, C. B., & Kamphaus, R. W. (2004).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 (2nd ed.)*. Bloomington, Minnesota: NCS Pearson.
- Suh, B. L., & Kang, M. J. (2020). Maternal reactions to preschoolers' negative

emotions and aggression: Gender difference in mediation of emotion regula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9(1), 144-154.

Van Egeren, L. A., & Hawkins, D. P. (2004). Coming to terms with coparenting: Implications of defini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1(3), 165-178.

- 논문접수 8월 5일 / 수정본 접수 9월 1일 / 게재 승인 9월 16일
- 교신저자: 강민주,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mj kang@yonsei.ac.kr

Abstract

The Effect of Coparenting Quality on Children's Social Skills: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Response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and Children's Anxiety

Sunjin Park and Minju K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response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MRCNE) and children's anxie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parenting quality and children's social skills.

Study participants consisted of 318 dyads of 4- and 5-year-old children and their mothers. SPSS 24.0 and AMOS 26.0 were used for analysis. Path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MRCNE and children's anxiety. A bootstrapping method was applied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s.

The results showed that MRCNE and child's anxiety have dual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parenting quality and children's social skills.

Keywords: coparenting quality, social skills, maternal response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child's anxiety

